

일본, 식육과 수산물의 가계소비 상관관계

일본에서는 최근 수년간 식육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 2000년 3월에 92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같은 해 5월에 재발생), 2001년 9월에 일본 최초의 BSE(소해면상뇌증) 발생(2004년 10월까지 모두 14건의 BSE발생), 2003년 12월 미국에서의 BSE 발생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현재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2004년 1월에는 79년 만에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축질병발생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젓소고기를 화우고기로 둔갑시키는 등 연이은 허위표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식육소비 형태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식육소비에 대한 영향은 가계뿐만 아니라, 외식, 식자재 산업, 식육가공 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가계조사 통계자료를 이용한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그리고 수산물의 관계에 대한 분석 자료를 정리해 보았다.

더욱이 일본경제는 거품경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침체를 경험하고, 최근 들어 회복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기요인도 가계의 식육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비지출, 식료품비 지출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1. 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지출

1.1. 소비지출

소비지출은 98년 11월 정점(10만엔)에 달했으나 2003년 5월에는 9만3천 엔까지 하락했으며, 이후 회복기조에 들어서서 2004년 3월에는 9만7천 엔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거품경제가 붕괴된 직후인 1991년 2월의 소비지출은 9만 엔이었으며, 식료품비 지출은 2만5천 엔(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8%)이었다. 소비지출은 거품경제 붕괴 후에도 약 8년 동안 12.1%가 증가하여, 정점에 달한 뒤, 5년 반 만에 7.3%가 떨어진 셈이다.

1.2. 식료품비 지출

식료품비 지출은 거품경제 붕괴 후에도 일정수준을 유지했으나, 1998년 11월의 2만6천 엔을 정점으로, 그 이후 하강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정체상태에 있다. 소비지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는 별도로 식료품비 지출의 회복은 아직 이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지출과 식료품비 지출의 관계는 소비지출이 증가하면 식료품비 지출이 늘어나는 높은 상관관계(1999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결정계수(R²)는 0.9134)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1993년 4월 이후에는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식료품비 지출은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식육과 수산물과의 상관관계

2.1. 구입수량에 대한 상관관계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와 수산물의 구입수량에 대한 상관관계는 < 표 1>과 같다.

표 1 구입수량 상관 계수, 1999.1~2004.9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산물
쇠고기	1			
돼지고기	-0.885	1		
닭고기	-0.339	0.293	1	
수산물	0.017	0.046	0.781	1

쇠고기와 돼지고기 사이에는 강한 마이너스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쇠고기의 구입수량이 증가하면 돼지고기 구입수량은 줄어들고, 돼지고기의 구입수량이 증가하면 쇠고기 구입수량은 줄어든다. 이러한 마이너스 관계는 쇠고기와 닭고기 사이에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또한 쇠고기와 수산물(신선 어패류) 사이에는 그다지 큰 관계는 없지만, 흥미로운 것은 닭고기와 수산물 사이에는 비교적 강한 플러스의 상관관계, 즉 닭고기 구입 수량이 증가하면 수산물 구입수량도 늘어나는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의 균형 있는 식품섭취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 된다.

분석기간(1999년 1월부터 2004년 9월)의 1인당 월평균 구입수량은 쇠고기 222.4g, 돼지고기 427.8g, 닭고기 299.7g, 그리고 수산물 1,110.3g이었으며, 100g당 평균 구입단가는 쇠고기 266.3엔, 돼지고기 135.7엔, 닭고기 93.0엔, 그리고 수산물 148.9엔이었다. 한정된 식료품비 지출 가운데, 양과 질(단가)을 잘 조화시킴으로써 식생활을 일정 수준 유지해가는 소비자의 지혜가 엿보인다.

2.2. 식육과 수산물(신선 어패류)의 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지출의 비율은 $25.6\pm 0.2\%$ 로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3년 11월 이후 비율은 낮아져 최근에는 24.9% 까지 하락했다.

식료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식육의 지출 비율은 BSE 영향이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면, $6.0\pm 0.2\%$ 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비율은 7.1%에서 6.2%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비 지출에서 식육과 수산물은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길항(拮抗)적인 관계에 있다.

일본의 식생활 형태로서, 지금까지는 가게에서는 신선어패류 등 수산물의 구입수량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수산물의 구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또한 육류를 선호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식육과 수산물의 구입수량은 가까운 장래에 역전할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는 BSE 영향으로 구입수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국면도 있었지만, 그러한 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가게소비량은 감소경향으로 추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돼지고기는 BSE 영향으로 쇠고기로부터의 대체 수요가 있었지만, 그러한 점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구입단가가 높은 쇠고기와 수산물에서 구입단가가 저렴한 돼지고기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BSE 영향으로 쇠고기 기피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구입수량 이동은, 수산물, 돼지고기, 닭고기의

순이었다.

닭고기는 BSE 영향에 의한 쇠고기로부터의 대체수요,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의 영향에 의한 감소 등이 보이지만, 분석 대상 기간 중에는 거의 일정한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으며, 구입단가가 저렴한 이유도 있어, 다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가계소비에서는 손쉽게 이용하는 중요한 식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분석 기간 중 구입단가에서 상대적으로 큰 변동을 보인 것은 쇠고기로,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정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산물은 분석기간 중 다소의 상승, 하락국면은 있지만, 일관된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돼지고기, 닭고기는 약간의 상승, 하락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2.3.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의 상호관계

신선 어패류 등 수산물을 제외하고 식육에 대해,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다.

2001년 3월의 대 전년 동월 증감은 쇠고기 -7.6g, 돼지고기 -2.3g, 그리고 닭고기 -1.3g 으로 식육전체로는 11.1g감소했다. 한편 2001년 10월에는 쇠고기 -13.4g, 돼지고기 8.5g, 닭고기 5.4g으로 식육전체는 0.5g 증가 했다.

1999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식육전체 의 증감은 그렇게 크지 않고, 쇠고기를 늘리면 돼지고기, 닭고기를 줄이는 등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1년 1월 이후, 소비지출, 식료품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식육전체의 구입수량도 줄어들었다.

2001년 6월 이후, 소비지출, 식료품비 지출이 증가 추세로 바뀌면서 돼

쇠고기와 닭고기의 구입수량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BSE 영향으로 쇠고기 구입수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후반기에 들어서는 쇠고기 구입량도 회복 경향을 보여 식육 전체적으로는 2002년 5월까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02년 6월 이후에는 식료품비 지출 감소로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감소 경향이 보이고, 2003년 10월 이후에는 돼지고기 구입수량은 증가한 반면 닭고기와 쇠고기는 잇단 BSE발생과 가금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2001년 9월의 BSE 발생으로 식육전체 구입수량은 증가하였지만 쇠고기애의 지출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대한 지출금액 증가분을 상회하여 식육 전체적의 지출금액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동안 신선 어패류 등 수산물에 대한 지출금액은 늘어났는데, 쇠고기에 대한 지출금액 감소분이 수산물 구입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 : <http://lin.lin.go.jp>에서
(황명철 hwangmc@nonghyup.com 02-3299-4170 농협조사연구소)